

46억5천만원 ‘꿀꺽’... 보조금 먹는 ‘하마 郡의원’

보성경찰, 시설원예사업 부당수수 보성군의원 입건

시설원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 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군의원, 시공업자와 원예 조합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성경찰은 21일 시설원예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보성군의회 김모(60) 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업자 김모(45)씨 등 5명과 보성군 J원예협회 조합원 29명 등 34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공무원 손모(42·7급)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46억5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J원예협회의 이름으로 지난 2009년 9900㎡ 규모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자부담 50%)을 따낸 뒤 비닐하우스 시공업체 대표 양모(45)씨와 공모, 공사비를

시공업자·원예조합원 등

40명도 무더기 적발

담당공무원은 알고도 묵인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6억29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신축 사업(자부담 30%)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11억 6300만 원을 가로챘고 오는 2월 완공 예정인 유리온실 신축사업(자부담 50%)에서도 26억4000만원(8억원 미지급)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무려 46억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자부담금을 업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지급했다가 돌려받는가 하면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실제 김 의원은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신축한 비닐하우스를 아들에게 넘기는가 하면 자신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 사업자가 비

민의 대변보다 이권 밝히는 기초의원들

광주·전남 기초의원들이 비리 행위로 잇따라 적발, 민의 대변이라는 본업보다 이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성경찰이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모(60)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최모(여·58) 의원은 최근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적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

광주·전남 잇따라 적발
기초단체가 눈치 보며
특혜 키우는 것이 문제

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흥군의회 김모(59)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조 운영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입건됐다.

김 의원은 향운 노조위원장 출

신으로 향운 노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노조로부터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흥군 송모(60) 의원도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160명에게 모두 230여만원 상당의 참치·주방용품 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질, 의회 내부의 자정능력은 차치하고 의원들의 일탈을 감시해야 할 기초단체가 오히려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는 게 암묵적으로 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보험증권 위조 보조금 편취

보험회사 대표·본부장 검거

보험증권을 위조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온 보험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보험증권을 위조해 지자체에 재해보험 보조금을 파다 청구한 뒤 가로챈 혐의로 L보험사 대표 정모(42)씨와 본부장 최모(5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조모(53·경남 거창)씨가 가입한 2900만원 상당의 가족재해보험 증서를 위조해 보험료 총액을 5100만원으로 늘린 뒤, 거창군청에 보조금 1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등 지난해 7월~12월까지 보험증권 35매를 위조,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가 발부하는 사본 보험증권으로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료 총액을 1.5~2배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대, 눈이 그린 수목화

21일 오후 전남대학교 정문 메타세쿼이아 길이 밤새 내린 눈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바람에 흩날리는 눈을 피해 목도리와 털옷으로 중무장한 여학생이 빠른 걸음으로 교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미끌어져 4중 추돌 사고

눈·비에 얼어붙어

도로위에 얇은 얼음막

육안으로 안보여 위험

블랙아이스

영하 기온에 비가 내려 얼어붙는 현상으로 투명한 얼음이 아스팔트 위를 마치 코팅한 듯 덮어 건조한 상태로 보이는 현상. 육안 식별이 어려운 데다,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안전 운행을 소홀히 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운전자들에게 ‘블랙 아이스’(Black Ice) 주의보가 내려졌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께 순천시 승주면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승주IC 인근에서 최모(32)씨 차량이 앞서가던 김모(56)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비슷한 시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문모(29)씨의 악센트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미끄러졌다. 도로가 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새벽에 내린 비가 얼면서 고속도로에 얇은 얼음막이 덮여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탓에 운전자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운전자들

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지석 대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던 김모(50)씨의 4.5t 트럭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1t 트럭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인근 블랙 아이스 구간을 지나던 차량 7대가 미끄러지면서 연속으로 추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열이 없는 아스팔트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 교각, 터널출입구 등이 ‘블랙 아이스’ 경계 구간”이라며 “일출 전인 새벽 6시~7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골목길 군고구마 수레 흠쳐 1만5천원에 판 황당男



○주먹가 골목길에 세워놓은 15만원 상당의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가 1만5000원에 고물상에 팔아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서 행.

○2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선모(60)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에 광주

시 광산구 신가동 골목길 가로수에 묶여둔 최모(44)씨의 군고구마 수레를 가져가 인근 고물상에 팔았다는 것.

○선씨는 경찰에서 “동네 골목에 고철로 된 군고구마통이 있길래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가져갔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히 미레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동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현변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총계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4. 2. 21(금) ~ 2. 24(월)
·전형일 : 2014. 2. 25(화) 오후 2시

■특별전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